



주 제:	“회개의 삶”	“연중 제 3 주일”	2008년 1월 27 일
복음 묵상:	마태 4,12-23 또는 4,12-17	이사 8,23 ~-9,3	1 코린 1,10-13. 17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걸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걸모습은 어부고, 무식하고, 성격 급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을 지닌 제자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 모습과 내 조건들이 만족스럽고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만족을 바라다면 어느 샌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느님은 계시지 않고 만족시켜야 할 문제들만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많고, 또 참 많은 것이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잊기 쉬운 하느님의 목소리를 내 생활 속에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박 진양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1) 이제 부활절이 앞으로 8 주밖에 남아 부활 성가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부활 미사곡은 J.A. Korman 의 성체 현양미사곡으로 정했습니다. 각 파트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본당 웹에 올려놓았으니 틈나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곡의 연습시간이 많이 부족하므로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매주 연습시간에 참석해 주십시오.

2) 부활절 성가 연습 스케줄

1/20: * 미사곡 * 골고다 언덕 * 주는 저 산밑에 백함 * 무엇을 먹을까 * 평화의기도 * 기억하라

1/27: * 미사곡 * 골고다 언덕 * 주는 저 산밑에 백함 * 무엇을 먹을까 * 평화의기도 * 기억하라

2/3: * 미사곡 * 골고다 언덕 * 호산나 * 거룩한 주님 * 문들어 머리들라 * 평화의기도 * 기억하라.

2/10: *미사곡 * 골고다 언덕 * 호산나 * 거룩한 주님 * 문들어 머리들라 *알레 알레 알레 * 기억하라.

2. 기도 요청

1) 근간에 급강한 기온으로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주위의 아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감사:

본당 수요 기도회에서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와 함께 금주 점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도와 함께 사랑의 봉사를 해 주신 모든 수요 기도회 가족들을 위해 감사와 함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거기에서 더 가시다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
 예수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분 명상

“ 회개와 자책 ”



회개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자책은 자신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회개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지만,
 자책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회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책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회개는 평화의 빛을 주지만,
 자책은 불안함의 어두움을 준다.

회개는 겸손의 결과이고,
 자책은 교만의 결과이다.

회개는 지혜를 남고,
 자책은 어리석음을 남는다